

## Session 12 천년 왕국에서의 예수님의 주요 통치 방법 (Jesus' Primary Governmental Strategy in the Millenium)

### I. 인간이자, 유대인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심

- A. 교회에게는, 이 땅에서 인간이자 왕 중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계시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모든 정부들 위에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다(계 20:1-6). 왕들은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적극적인 순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내려와야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속 14:9)*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6)*

- B.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서 두 종류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았다 : 첫째는 부활체의 몸을 입지 않은 천년 왕국 지구의 왕들이며, 둘째는 제사장의 지위로서 왕이 된 부활한 성도들이다. 각각은 서로의 독특한 통치 영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왕들은 서로 밀접하게 일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도의 영을 근간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주를 향해 섬기고 일하며, 모든 왕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NKJV : kings)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5-6)*

### II.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 : 문화 명령의 완성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6-28)*

- A.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 - 아담에게 창세기 1:26-28절에서 주어진 이 문화 명령은 죄의 저주로 인해 상취가 지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통치와 권세를 되찾기로 결정하셨다(창 3:1-9; 눅 4:5-6).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온 땅에 대한 통치의 권리를 회복하셨고, 이 땅에 돌아오심으로 문화 명령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모든 족속을 제자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해 순종치 않는 나라는 진멸될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사 60:12)*

- B. 문화 명령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말한다(정치, 사회, 농경, 경제, 영적, 교육, 법 집행, 가족, 미디어, 예술, 기술, 운동 경기, 환경, 사회 제도 등). 우리는 이사와와 미가를 통해 문화 명령에 대한 더 많은 계시를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일이 주이신 예수님에 의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한다(사 2:2-4; 미 4:2-5).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Session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 III.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 : 지상 대 명령의 완성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8-19)*

- A. 지상 대 명령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위임명령이며, 이는 애초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문화 명령(창 1:28)의 완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열국의 모든 부분들 위에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유업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제자화하셔서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합당하도록 하셔서 민족들이 파멸되지 않도록(사 60:12) 하셔야만 한다. 지상 대 명령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 성취되어야만 하는(마 24:14), 여러 제자화와 함께 진행되는 대형 복음 운동)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을 말한다.
- B. 온 땅에 대한 예수님의 현저한 다스림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는 부분적인 다스림의 단계로서, 현재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다스림이다. 이 단계는 십자가에서 시작됐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본질적인 단계로서, 천년 왕국 때에 임하게 될 온 땅에 대한 그분의 정치적인 다스림의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궁극적인 단계로서, 천년 왕국 이후에 시작되는 새 땅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 대 명령의 부분적이며,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모든 세 단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일해 나가게 될 것이다.
- C. 모든 열방은 이 땅에 임할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에 자신들을 합당하게 바꾸어나가는 능동적인 순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사 60:12). 예수님께 대한 능동적인 순종을 계속해나감으로, 그들 자신을 이 땅에 임할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에 합당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열방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할 것이며, 온 지구상의 그 어떤 이방인 가정 또는 나라들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슥 14:16-18).

*너(이스라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사 60:12)*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

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속 14:16-18)

- D. 보좌의 왕이자 성전의 대 제사장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서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천년 왕국 성전을 관장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실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정치적이며 행정적인 책무를 맡은 왕으로서의 직임과, 온 땅 위에 거룩을 부으시는 예배와 중보의 책무를 맡은 제사장의 직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집무실”은 “기도실”과 하나가 될 것이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천년 왕국 성전 안의 지성소)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 (겔 43:7)

- E. 하나가 되는 교회(성전)와 국가(보좌) - 예수님의 리더십은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로 결합하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두 직임을 평화롭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예수님)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예배/중보) 전을 건축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정치/통치)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속 6:12-13)

#### IV. 예수님의 통치는 1,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게(팽창하게) 될 것이다.

그(예수님의) 정사와 평강의 더할(증대)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7)

- A.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열방이 제자화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며, 이는 성령님의 권능과 계시의 풀어짐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치로 인해 진행될 것이다.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 왕국 왕들과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통치의 자리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 기반 시설들의 계속된 증대와 향상 또한 포함된다.
- B.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땅에 대한 통치권을 취하심에 있어서 수반되는 과정(process)을 간과하기 쉽다. 이방인 신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자연계의 환경에서 왕으로서 임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신성을 기반으로 한 하늘의 초자연적인 환경 안에서의 그분의 다스림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C.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적인 과정들 위에 결합되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세)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것이다(정치, 경제, 사회, 농경, 영적, 교육, 법 집행, 가족, 미디어, 예술, 기술, 운동 경기, 환경, 사회 제도 등). 이 증대됨은 기량의 개발과 이해함을 포함해서 양적, 질적이며 더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확장될 것이다.

#### V. 다윗의 계시 : 중보기도를 통해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신 왕 - 시편 2편

- A. 시편 2편은 다윗의 종말론에 대한 수위를 보여준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마지막 때에 대한 명확하고도 가장 중요한 개관을 제공한다. 마지막 때에 대해 다른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놀라운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의 베드로후서 3장, 사도 요한의 계시록 12-14장, 19-21장, 다니엘의 다니엘 7장, 그리고 모세의 신명기 30장.
- B. 열방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해왔으며, 이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가장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시 2:1-3).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국제적인 적대감이 드러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초대 교회 시대에 또 다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행 4장). 이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역사적으로 적대감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가장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이다. 이 불의한 이방인 나라들의 연합은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대적하게 될 것인데, 이는 아버지께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이 되게 하신 것과, 온 땅의 모든 이방인 나라들에 대한(6절) 왕으로서 선택하심에 대한 것이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시 2:1-3)*

- C.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열방들을 향해 비웃으신다(시 2:4-6). 아버지께서는 전에 없던 전 세계적인 군대와 전술과 자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비웃으시며(사 40:17) 이 일에 대해 간섭하시기로 결정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방인 나라들 위에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6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왕(예수님)을 내 거룩한 산 시온(재림 이후의 예루살렘)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 2:4-6)*

- D. 다윗에게는 중보기도를 통해 각 나라의 모든 부분들(정치, 사회, 농경, 경제, 영적, 교육, 법 집행, 가족, 미디어, 예술, 기술, 운동 경기, 환경, 사회 제도 등)을 취하시는 메시아이신 왕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시 2:7-9).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아버지)께서 내(예수님)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 2:7-9)*

1. 이 다윗의 계시는 중보기도를 사용하시는 메시아이신 왕에 대한 것이다. 시편 2:7절에서, 다윗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을 전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통치하신다.
2. 내가 영을 전하노라(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다.

3.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지구상에 있는 아버지의 뜻과 합당하지 않는 불의한 모든 조직들을 깨뜨리고 부수실 것이다.

E.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시며 진리에 대한 5가지 영역을 말씀하신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영적인 정체성). 두 번째로, 그분은 낳아진 분이시다(신성과 인성). 세 번째로, 그분은 주요한 통치 수단으로 중보기도를 사용하신다. 네 번째로, 열방은 그분께서 소유하시게 될 그분의 유업이다. 다섯 번째로, 그분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실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명령들은 예수님에 의해 선포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예수님의 통치가 노래(singing)와 말(speaking)을 통해 행해질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 VI. 창조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 중보적 역동성

A. 창조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 중보적 역동성(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1-3)

1. 아버지의 계획과 권능
2.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아들의 표현
3.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아들로 인해 능력을 풀어놓으시는 성령님

B.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동역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역하여 아버지의 것을 자연계에 풀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곳에서 볼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1-3)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 1:9)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창 1:11)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창 1:14-15)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족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창 1:24)

VII. 하나님의 중보적 계시이신 예수님 : 창조, 유지 그리고 다스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중보적 계시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중보적 계시로서의 예수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A.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다.

만물이 그(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6)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2)

B. 아버지께서는 마음속에 불타는 계획이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발하시고, 이를 표현해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살아계시며, 표현되어진 말씀<sup>1)</sup>의 역할을 하신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sup>2)</sup>이라 불리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말씀되어진 말씀(말로 표현된 말씀, spoken Word)”이시며, 이 말씀들이 자연계에 나타나도록 하신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 또는 “살아계신 중보적 계시”이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심과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불드심(다스리심)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을 선포함으로써 아버지의 갈망을 계시하심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권능을 보이셨다.

C.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살아계신 중보적 계시”의 역할을 하신다. 즉, 그분은 그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기도의 영으로 자연계에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신다.

D. 예수님께서는 창조자로서의 “중보적 계시”의 모습을 보이신다(창 1:3,9,11,15,24,30).

E.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중보적 권세를 가지신, “말씀이자 진리”로써 자연계 가운데(시간 속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시 33:6)

F.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말씀하심으로(중보)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며 불드신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또한 그(예수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현대어성경 :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골 1:17)

---

1) 원문 : Living spoken Word

2) 원문 : Word that was with God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아버지)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 4:10-11)

- G.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에 근거해서, 나 자신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보존하시며 유지하심) 있어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중보적 예배 네트워크”(하늘과 땅에서의, 그리고 영원을 통해)을 가지신다고 생각한다.

### VIII.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함(중보적 예배)

- A. 예수님께서서는 “중보에 기반을 둔 통치”를 통해 우주를 다스리신다.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노라”라는 단순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변화시키시며 그분께, 그리고 서로에 대해 연합하도록 하신다. 이는 노래 또는 말로써도 선포될 수 있다.
- B.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확장하시는 방법으로써, 명령을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선포하신다.
1. 첫째로, 그분께서는 이를 하나님께 선포하신다 - 이를 중보라 부른다.
  2. 둘째로, 그분께서는 이를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하신다 - 이를 설교라고 부른다.
  3. 예수님의 명령들은 위로는 하나님께,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향한다.
  4. 지나간 시대의 부흥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곤 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 IX. 중보 기도의 신비와 위엄

- A.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는 중보의 위엄과 신비를 엿볼 수 있다.
- B.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예수님과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하는 그분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중요한 원칙이다. 즉, 천년 왕국에서 온 땅,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이들이 아버지께 이를 풀어놓아주시도록 구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땅을 취하시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모든 이들은 물론 리더십들의 기도와 역동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 X. 통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써의 중보 기도

- A. 중보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들이 내재화되도록 하는데, 이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분께 다시 말씀해드림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즉흥적인 노래(spontaneous song<sup>3)</sup>)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영에 새겨지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 B. 왜인가? 아버지의 말씀들은 영이자 생명이기 때문이다(요 6:63).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운반되며 전해지는 수단이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존재 안에 있으며, 우리가 이를 입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터치하게 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과,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하는 대상의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 C. 중보는 통치를 위한 훌륭한 전략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친밀함으로 이끌며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를 맡게 될 백성들을 연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 D.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인간과 그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다스리며 충만하게 채워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단순히 선포함을 통해, 이는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다스려나가며,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분의 우주를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된다.
- E. 통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써 “내가 영을 선포하노라(I will declare the decree)”는, 하나님과 동역하여 우주를 통치해나가는 행위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영속적으로, 보호하시며 새롭게 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 17:23절에서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완전하게 연합되게 된다. 우리의 내면의 코드는 한 줄 한 줄 새롭게 쓰이며, 그 과정이 수 천 년을 통해 반복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
- F.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 단순함은 쉽게 간과되곤 한다. 여호와와 명령을 선포하는 이러한 단순한 선언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서로의 마음 안에서 연합됨과 친밀함으로 하나로 합쳐진다. 통치와 친밀함과 공동체(government, intimacy & community)는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선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이며, 이를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게 하신다.
- G.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 분 안에 거하셨고, 중보의 필수적인 연료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요 5:39; 8:31-32; 15:7)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된다.
- H. 예수님께서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고 말씀하셨다. 진리가 말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되며 풀어놓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향하건 외부를 향해 선포되어지건 동일하다. 우리가 말씀을 중보 가운데 선언하고 말할 때, 우리의 영은 생명이자 영인 말씀과 맞닿게 된

---

3) 역자 주 : 하프&보울 강의 요강 참조



다.

## XI. 중보의 막대기인 예수님의 입

- A.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중보(그분의 입의 막대기라 불리는)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로 그분은 이 땅을 치신다. 이는 그분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그대로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막대기(흙)이다. 이는 모세가 땅을 치며 심판할 때 모세의 지팡이와 대응되는 부분이다. 그분의 입의 막대기(계 19:15; 12:5; 시 2:7,9; 110:2; 사 11:4; 엡 6:17-18; 계 2:27-성도와 함께).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 11:4)*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흙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천년 왕국 가운데 다스림과 통치를 가져옴) (시 110:2)*

*여자(이스라엘)가 아들(예수님)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 12:5)*

*내가 영을 전하노라(개역개정판 :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예수님)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 2:7-9)*

*그(이기는 신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 2:27)*

- B. 그의 입의 검은 그의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은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 19:15)*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7)*

- C.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막대기와 그의 입의 이한 검은으로 만국을 치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은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 19:15)*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 11:4)*

- D.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대적들을 향해 숨을 내쉬심으로 그들을 죽이신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표현하시는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성령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으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지구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에 성령님을 부으시기 위해 그의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그분의 대적들을 향해 입김을 불어 날리실 것이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 11:4)

그 때에 불법한 자(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살후 2:8)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7)

## XII. 영원을 통해 중보를 통해 움직여지게 되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9:24)

## XIII. 하늘의 정부(통치)는 영원히 중보를 통해서 움직인다

- A. 성령님께서서는 이 땅과 하늘의 위대한 중보자이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계 22:17)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 (슌 12:10)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욘 2:28,32)

- B. 하늘 정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들(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은 아버지 앞에서 중보의 예배로 살고 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 4:8)*

#### XIV. 예수님께서서는 천년 왕국을 기도의 영으로 다스리신다

- A. 보좌의 왕이자 성전의 대 제사장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서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천년 왕국 성전을 관장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실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정치적이며 행정적인 책무를 맡은 왕으로서의 직임과, 온 땅 위에 거룩을 부으시는 예배와 중보의 책무를 맡은 제사장의 직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집무실”은 “기도실”과 하나가 될 것이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천년 왕국 성전의 지성소)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 (겔 43:7)*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13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14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마 21:12-14)*

- B. 예수님의 리더십이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영광의 성전에서의 통치가 될 것이다. 성산(holy Mountain)에 있는 예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 성전은 스가랴와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에게 기도의 집의 모습으로 계시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천년 왕국 성전까지 연속성이 있는)을 기도의 집이라 부르셨다.

*내가 그(이방인들)를 나의 성산(천년 왕국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 56:7)*

- C.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마 24:2). 그분의 열정은 천년 왕국 성전에 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 2:17)*

- D.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전(집)임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그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다. 예수님의 보좌는 성전 안에 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요 방법으로써 모든 열방을 향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될 것이다.

- E. 교회(성전)와 정부(보좌)는 하나가 될 것이다 - 예수님의 리더십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둘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며, 완벽히 하나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예수님)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예배/중보)을 건축하라 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정치적/행정적)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슌 6:12-13)*

- F. 예수님의 주요 통치 방법은, 천년 왕국 성전에서 있게 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중보가 될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의) 보좌는 성전에 있게 될 것이다.

*그(예수님)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Throne)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슌 6:13)*

*그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렘 3:17)*

- G.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예수님께서서는 왕(이 땅에 보좌를 가지고 계신 통치자)이시며 제사장(성전에서의 예배와 중보)이시다.

*여호와(아버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예수님)는 멜기세덱(왕)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정치적 역할) 6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시 110:4-6)*

1.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배와 중보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한 통치를 말한다. 즉, 이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와 중보의 역할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2. 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통치가 풀려지게 됨을 말한다. 이는 통치(government)와 친밀함(intimacy)과 공동체(community)를 하나 되도록 하며, 성도가 영원을 통해 계속해나갈 최상의 활동이기도 하다.

- H. 천년 왕국 지구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도의 집이 된다. 천년 왕국의 통치의 중심은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보좌가 하나로 연합되며 새 예루살렘과 역동적으로 수렴되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버지의 보좌가 기도와 예배로 둘러싸여 있듯이(계 4-5장), 땅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도 그러할 것이다.

- I. 지속적인 중보가 아버지께 드러지게 될 것인데, 이는 만국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가져오기 위해 부름 받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축복하기(높이기) 위해서이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예수님)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시 72:15)

이러한 왕(예수님)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시 72:15, 표준새번역)

1. 성도들은 그분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책무로 인해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2. 창조의 과정과 초림에서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중보를 하셨으며, 천사가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아버지께 끊임없이 드러지게 됨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는 측면이 있게 될 것이다.
- J.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예배를 도울 것이다.

*...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 29:9)*

## XV. 천년 왕국에서의 예수님의 주요 통치 방법

- A. 이 시기의 기도 운동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 천년 왕국 지구에서의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들과 천사들의 예배와 기도로 구성될 것이다.
- B.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집들의 “네트워크”를 세우실 것이며, 온 땅에 있는 그분의 통치 리더십들의 기도의 영을 기경하실 것이다. 이로 인해, 만국의 통치 리더십들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정부(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있는)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천년 왕국의 성도들이 이에 대해 기도할 것을 독려하실 것이다, 이는 매우 역동적인 일이 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 동의하며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 D. 예수님께서서는 천년 왕국의 유대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독려하실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 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겔 36:37)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속 10:1)

- E. 이사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이 풀어질 것에 대한 기도를 예언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임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사 30:18-22)

- F.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 기도의 집(Jerusalem IHOP)”으로 올라가서 기도에 대해 배우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수받은 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땅에서 통치의 권세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방인들)이 올 것이라 21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표준새번역 : 만군의 주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너희를 축복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속 8:20-23)

1. 기도와 예배의 영은 땅에서 각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풀어놓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2. 각 나라들의 중보적 권세에 따라 각 나라의 삶의 질이 다르게 될 것이며, 각 나라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풀어지는 지식과 지혜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 G.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것을 독려하실 것이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이방인들)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 56:6-8)

- H. 이전에 적대적이던 이방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배와 기도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순종은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농경)과 관

계될 것이다. 모든 적대적인 이방 나라들, 특히 이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이방인들)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표준새번역 :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속 14:16-18)

- I. 천년 왕국 때의 기도 운동은 만국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풀어놓게 될 것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7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 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 149:6-9)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뻘뻘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8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29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30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표준새번역 : 그의 백성은 소고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향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사 30:27-33)

- J. 예수님께서서는 밤낮으로 드러지는 기도를 통해 공의가 세워질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재림의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방법을 천년 왕국의 지구에 공의를 풀어놓는 데에도 사용하실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공의를 풀어놓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눅 18:7)

## XVI. 다윗에게 있어서의 중보의 가치

- A. 다윗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으로써의 성전을 짓기로 맹세했을 때(시 132편), 그는 중보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언약계 주위로 두었고,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 주위로 동일한 일을 시행했다. 이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의 보좌 주위로 행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계 4-5장).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2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 5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 이는(예루살렘 성전) 나의 영원히 설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 132:1-5,13-14)

- B. 이 계시는 다윗의 통치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24/7 예배와 중보를 그의 땅에서의 다스림의 기초로 삼았다(대상 23-25장)
1. 다윗은, 예수님을 향한 과격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며 예배와 중보를 통해 권능으로 사역하는 기름부음 받은 교회의 모델이 된다.
  2. 다윗의 사역은 예언적인 중보 예배가 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의 계시에 근간을 두고 있다(시 22:3).

## XVII. 현재의 우리에게 대한 적용

- A. 예수님께서서는 중보가 천년 왕국 통치의 근간이 됨을 계시하심으로 중보를 예수님의 주요 사역으로 높이셨다. 시편 2편에서, 아버지께서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성삼위적 대화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중보를 통해 땅 끝까지 그의 소유를 취할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중보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써 세우셨다.
1. 따라서 기도의 집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 센터가 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른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영원토록 추구해나가야 할 가장 지혜로운 것이 기도의 영을 기경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이 한 구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사역들은 중보 사역의 아래, 또는 둘째 자리에 있는 것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즉, 기도의 영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 수 있다.
  2.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다스림 - 예수님께서서는 천년 왕국 리더십의 모델에서 중보에 대해 강조하셨다. 이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중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계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그분 자신의 천년 왕국 통치의 모델로 삼으심으로, 중보를 다른 모든 사역 활동보다 우위에 두셨다. 시편 2편은 현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계속될 지상 대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모델에 대해 계시하고 있다.
- B.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 이후에도 있을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알게 됨으로,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중보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우선되는 부분이다.
- C. 결론적인 원리는, 우리는 지상 대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현재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까지도 우리의 모든 힘(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중보 예배에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 D. 우리는 현재 천년 왕국에서의 다스림을 위해 훈련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특별히 우리가 겸손함과 기도의 영을 기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E.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건 간에, 우리는 중보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대적들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기에, 중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된다.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 F.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기도에 대한 권고하심으로 마쳐진다(마 24-25장, 막 13장, 눅 17, 21장). 나 자신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른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기보다 단순하게 기도에 대한 초점으로 마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록 또한 동일하고도 단순한 초점으로 마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와 성령님이 함께 연합하여 다시 오심에 대해 부르짖는 것을 보이신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끝이 맺어진다.
- G. 예수님께서서는 중보를 그분 자신의 천년 왕국 사역과 통치의 모델로 삼으심으로, 이를 다른 모든 사역 활동들보다 우위에 두셨다.
- H. 기도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다. 사도들 또한 기도하는 것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다음으로 두었다(행 6:4). 이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며, 둘 다를 한꺼번에 취하는 부분도 아니다. 이 배열은 주권적인 순서에 의해 된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영을 방해하는 부분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제거해야만 한다. 시간의 문제나 개성, 자만은 기도의 영을 무너뜨린다. 기도의 영이 사라지게 하거나, 약해지게 하거나, 타협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원수의 일들이다. 기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이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성취하고 유지해 나가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겸손과 정결(meekness and purity)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I. 기도의 영은 가장 드물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통치와 정부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이를 유지하고 성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J.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기경하고 개발하는 기도의 영은 다가올 세대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통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 K. 하늘의 성도들조차도 땅에서의 공의를 위해 중보를 사용한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중보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공의를 가져오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계 6:10)*

- L. 예수님께서서는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중보)하심으로 함께 일하셨다. 따라서 아담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정하고 그들에게 말함으로써(중보의 형태) 동일한 패턴을 따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 2:19-20)